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은 전부 죽은 것들에서 온 것이었다. 상상도 못 할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색이 바랜 생명체들의 표본, 탐험가와 어부들이 전해 준 이야기, 해변에 떠밀려온 잔해물이나 자갈 해안에 좌초된 생물의 흔적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바다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상상으로만 그릴 수 있었던 거대한 숨겨진 세계였다.

당시 우리는 육상 생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지구 표면의 3분의 2, 그리고 생물이 서식 가능한 공간의 99%를 차지하는 해양 생물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조각밖에는 알지 못했다. 그 단서들은 늘 짧고 덧없었고, 그 덕분에 더 깊은 곳을 알고자 하는 욕망은 더욱 커졌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말이 되지 않았다. 영양분이 부족한 물속에서 눈부신 생물 다양성이 꽃을 피웠고, 대륙과 멀리 떨어진 해저 산에는 생명이 가득했으며, 가끔 발견되는 동물 사체는 기존의 지식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서히 우리는 실마리를 찾았고, 실마리는 가설로, 가설은 마침내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졌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바다 생물을 관찰하고, 추적하고, 지도에 기록할 수 있게 해주었고, 바다는 조금씩, 그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200km 떨어진 바다, 중무장한 회색 군함들이 바다로 향하는 사이 푸른 고래 한 마리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 배에 탄 선원 중 이 지역에서 낚시를 하며 어린 시절을 보낸 한 명은 그 고래 특유의 분기를 한눈에 알아본다. 대왕고래의 머리 위에는 수염고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 이중 분기공을 V자 형태로 감싸듯 둘러싼 강한 근육이 있다. 근육이 이완되면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분기공이 닫히고, 고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분기공이 열려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이 분기는 이 지역에 자주 출몰하는 혹등고래의 낮고 넓은 분기와는 명확히 구분된다.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동물인 대왕고래의 거대한 폐에서 뿜어져 나온 그 분기는 시속 600킬로미터에 가까운 속도로 하늘 높이 치솟는다.

이 고래는 8살 된 암컷으로, 알래스카의 차고도 풍요로운 바다에서 먹이를 채운 뒤, 수천 킬로미터를 남쪽으로 이동 중이다. 그 여정에는 거대한 켈프 숲, 영양이 풍부한 강 하구, 그리고 심해 화산 지형인 해저산(seamount) 등이 있다. 이동하는 동안 고래는 이곳저곳에서 머물며 풍부한 먹이를 먹고 휴식을 취한다. 해양 생물이 풍성히 몰리는 난류 상승 지점(upwelling)에서도 잠시 머물다, 곧 해안선을 따라 전나무에서 선인장으로 식생이 바뀌는 따뜻하고 잔잔한 해역을 향해 방향을 튼다. 첫 새끼를 낳기 위해서다.